

세상은 우리의 교구입니다

감독회의 4과 수업 시리즈

글로벌 감리교회의 유산과 그 안에서의 당신의 위치를 발견하십시오



GLOBAL
METHODIST CHURCH



존 웨슬리는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웨슬리가 처음에는 다양한 “교구”에서 교회 건물 바깥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그 표현은 설교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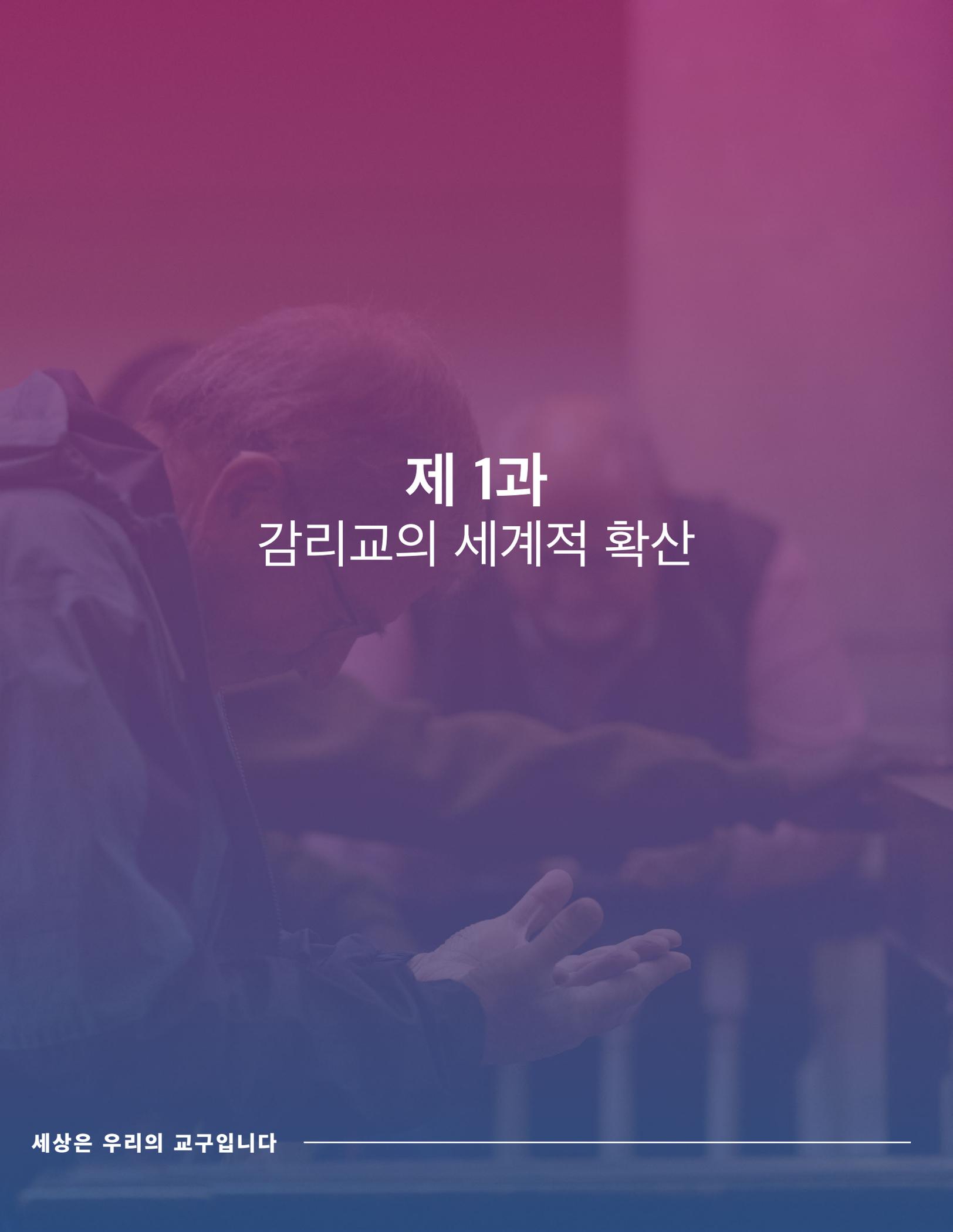
“세상은 우리 교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감독회와 함께하는 특별 강의 시리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4회 강의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은 감리교의 뿌리와 더불어 그 신실한 믿음의 계보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역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는 영국에서 촬영되었으며, 우리를 감리교 신앙 유산과 깊이 연결해 주는 중요한 웨슬리안 역사 유적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청하면서, 이 학습 안내서를 활용해 각 영상 강의를 따라가며 각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보려면 스캔하십시오

영상은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tinyurl.com/TWIO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과

감리교의 세계적 확산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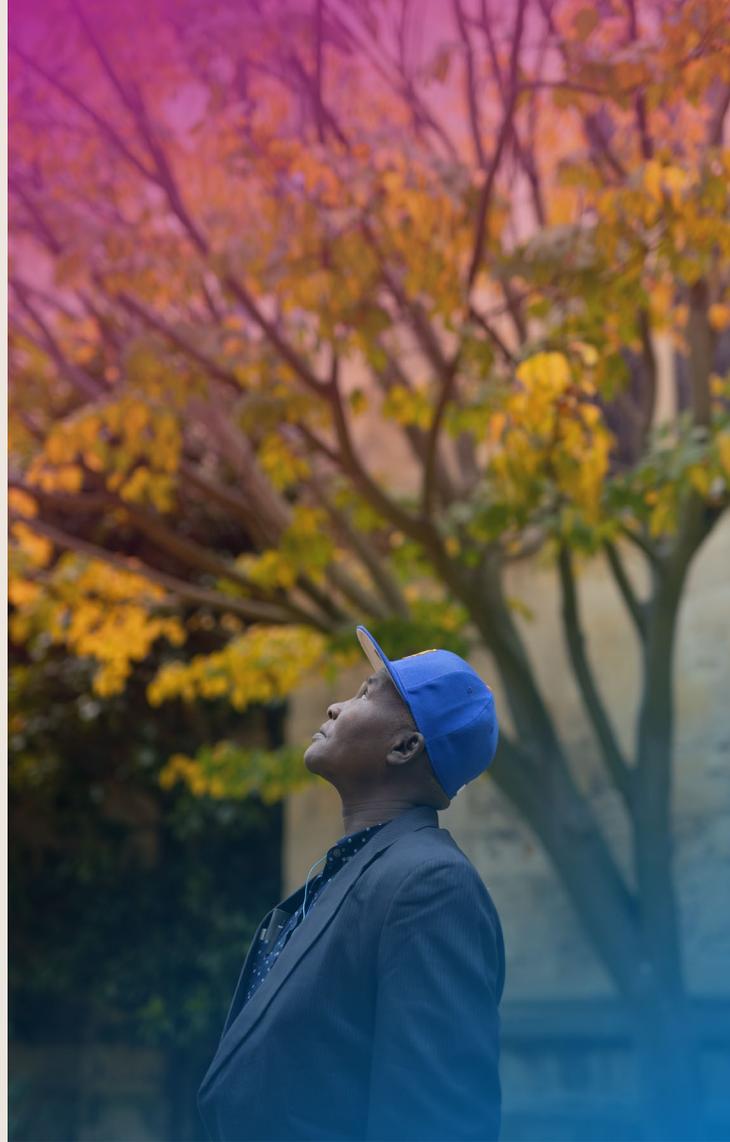
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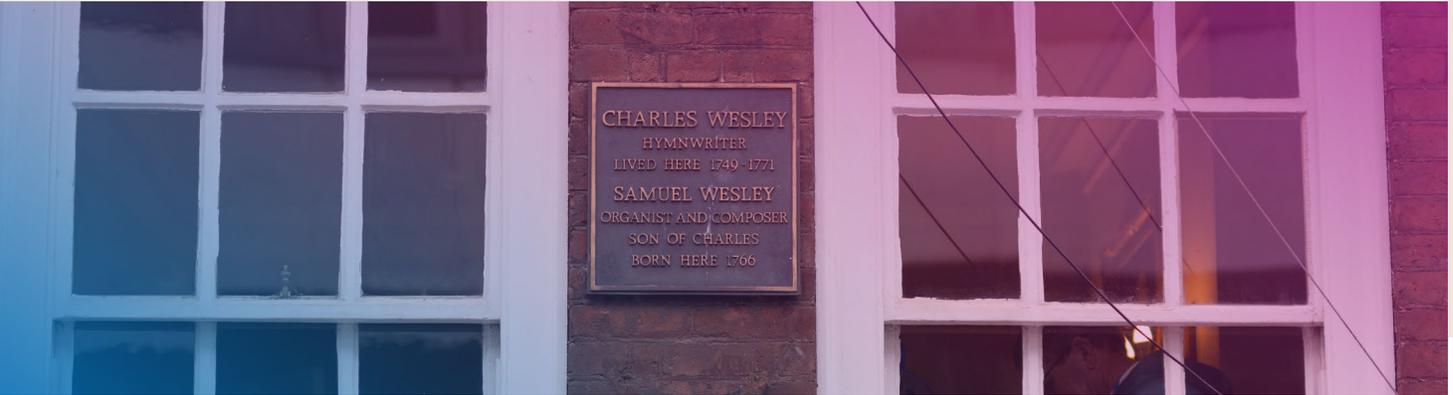
아우타 감독과 함께하는 감리교의 세계적 확산

읽기

사도행전 1:6-9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나열한 장소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제자들이 이미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도시를 넘어선 다른 유대인들에게로 가는 것을 의미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화권 안에 머무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원수로 여겨 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오랜 원한을 내려놓고, 여전히 미움으로 되돌려줄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기꺼이 사랑하려는 마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그들 모두에게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뜻을 담은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은 당신의 교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혹은 사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라는 뜻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적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안전하고 익숙하며 편안한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남녀 성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간 영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 어떤 다른 신앙도 이처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참된 기적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인 성령께서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세대의 감리교인들을 이미 이 사명을 위해 능력으로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안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일까지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글로벌 감리교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까지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임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까지 펼쳐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땅끝을 외면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때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 여러분의 영적 가계도를 떠올려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3.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4.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딛을 수 있는 한 가지 다음 걸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분별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나 실천이 필요할까요?
5. 이 “세상은 우리의 교구이다(The World Is Our Parish)”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전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2과

감리교와 선교

세상은 우리의 교구입니다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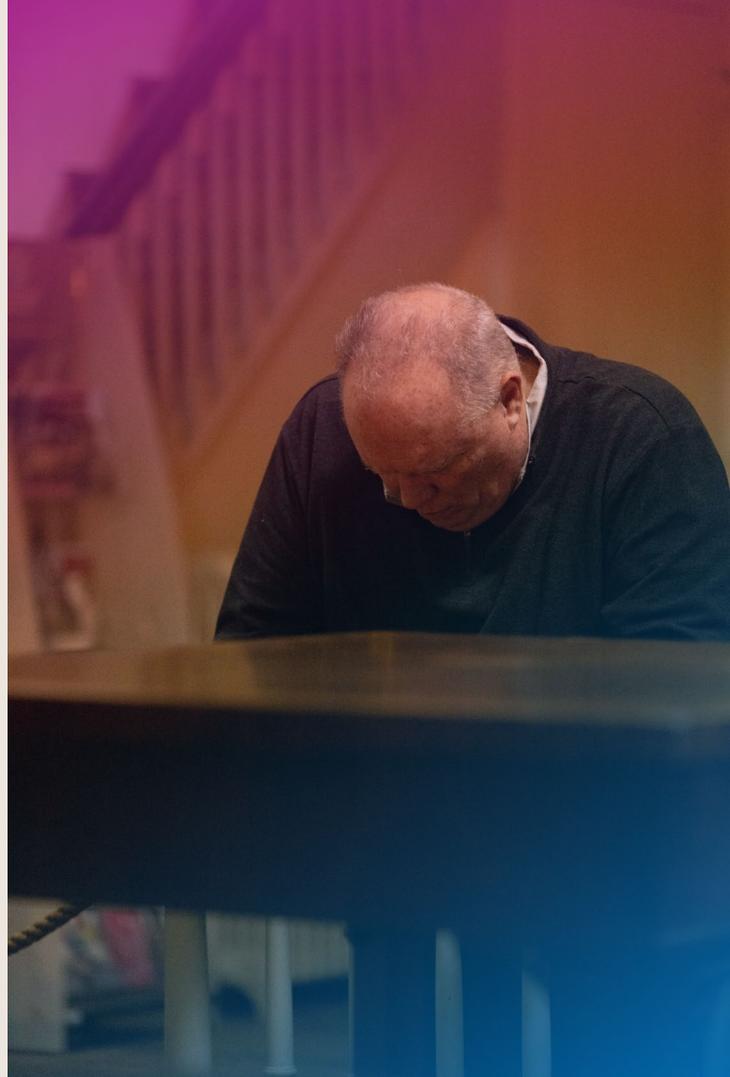
2과

감독 그린웨이와 함께 하는 감리교와 선교

읽기

창세기 12: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 세였더라.





“우리는 복이 되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복 주심과 보내심’의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람은 일흔다섯 살이었고, 결혼한 상태였으며, 아마도 삶이 꽤 안정된 때였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살던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고향에서 멀리 떠나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사람들은 보통 평생 가족 전체와 함께 살며, 그들을 돌보아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멀리 떠나 “가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에서 불편함으로, 안정에서 말끔으로, 자신이 세워 온 계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보실 수 있는 계획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종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브람에게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장차 “큰 민족”으로 자라 온 세상을 축복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람의 미래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브람의 가족은 곧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며, 그들의 율법과 삶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아브람의 한 후손을 통해 오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적 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용어는 ‘보낸’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궁극적 축복을 가리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 왔습니다. 선교적 사명 가운데 살아왔던 수많은 세대의 감리교인들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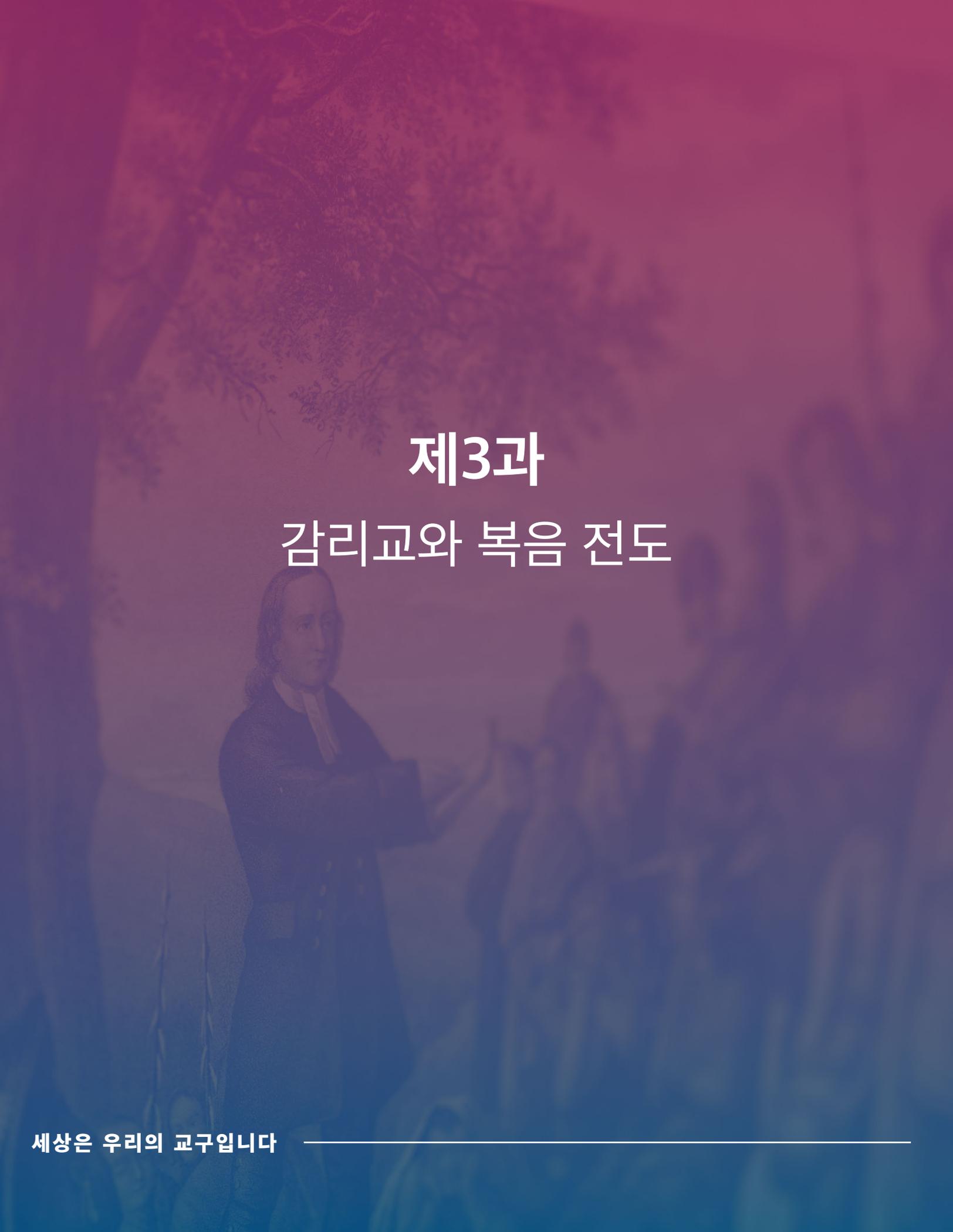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장 작은 이들, 가장 뒤처진 이들, 길 잃은 이들, 그리고 외로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삶을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2. 오늘 이 수업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가장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점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며 선택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혀 말이 되지 않을 희생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여러분이 속한 지역 공동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몇 가지 모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새로운 방식의 섬김이나 희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가요?





제3과

감리교와 복음 전도

시청

3과

감독 레빙스턴과 함께 하는 감리교와 복음 전도

읽기

마태복음 28:16-20

“그 후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있는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뵈었을 때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웁니다. 어떻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른바 “지상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십니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첫 단계인 “가라”는 말씀 앞에서부터 막혀 있다고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친구들을 만들어 왔기에, 정작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알고 있기는 한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친절하게만 지내면 언젠가 동료나 계산원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기를 기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떻게 그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라”는 명령은 잃어버린 이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의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세례를 베풀라’와 ‘가르치라’는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함께 말해 줍니다. 곧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이 두 영역을 잘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어떻게 하면 둘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복음 전도와 제자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든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때이든 늘 곁에서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제자로서 깊이 자라가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의 정의를 암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는 여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는 모든 시도가 감사가 아닌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단지 세례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 번, 우리는 믿음을 전파하는 이 근본적 진리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온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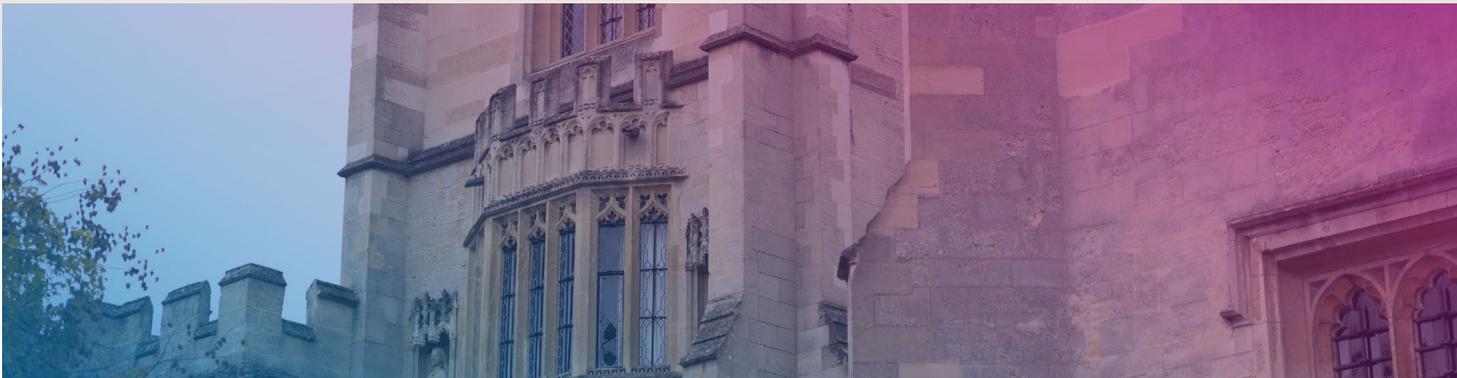
전능하신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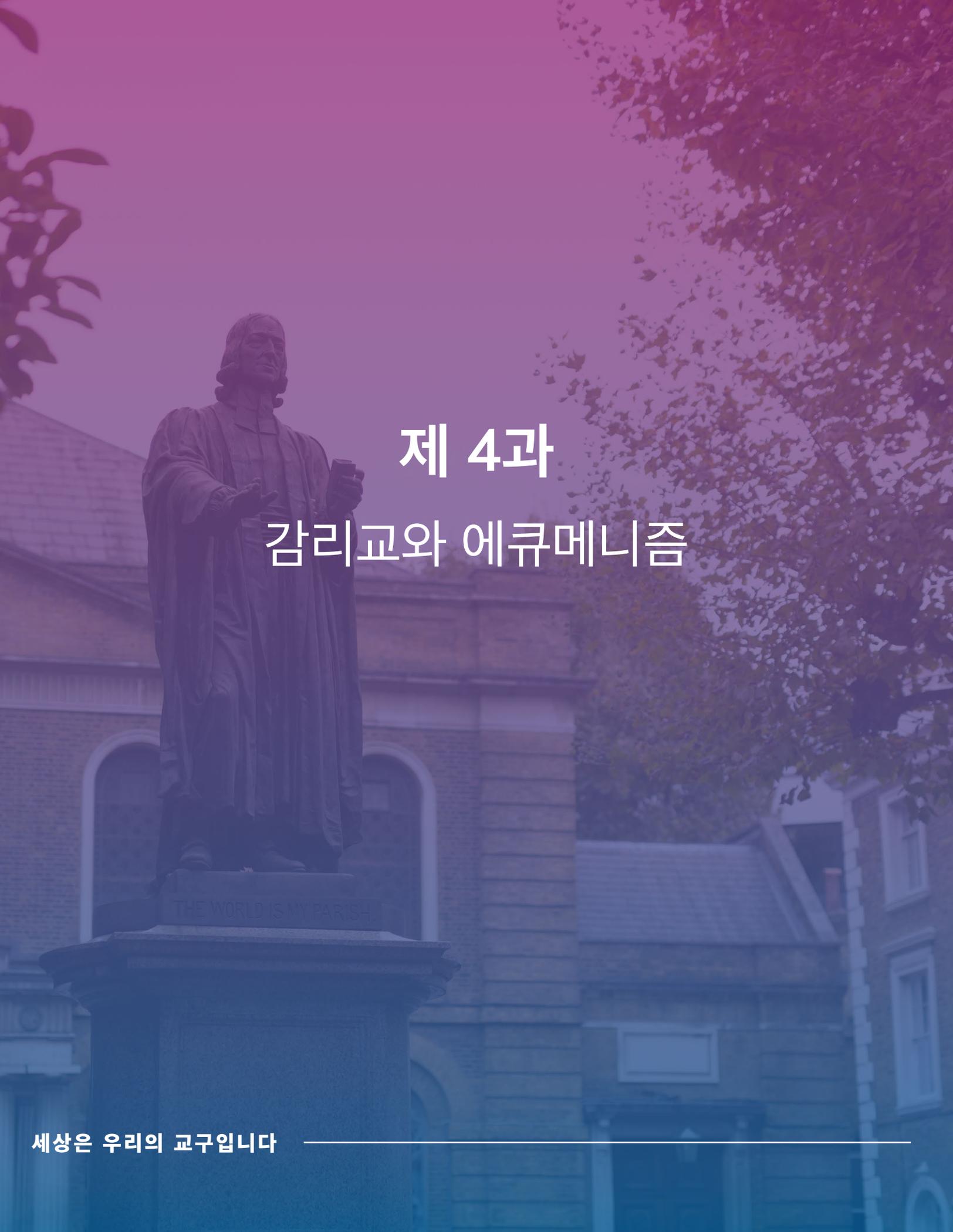
주님은 우리가 찾아 나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오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나 안일함 때문에 주저했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안에 불을 붙여 주시고, 복음 전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점에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어떤 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고 싶게 만들었습니까?
2. 많은 사람이 복음 전도를 어렵게 느낍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3.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다섯 명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만약 다섯 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갈 수 있을지 적어 보십시오.
4. 이 사람들, 혹은 새로운 관계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기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시겠습니까? 언제? 이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만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더 의도적으로 “일상의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 4과

감리교와 에큐메니즘

세상은 우리의 교구입니다

시청

4과

캐롤린 무어 주교와 함께하는 감리교와 에큐메니즘

읽기

요한계시록 7:9-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거의 매 주일마다 이 문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문장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구절일 것입니다. 왜 가톨릭인가요? 그렇다면 개신교인인 우리에게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신조의 모든 단어가 치열한 논쟁과 확신 속에서 다듬어졌다면, 왜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단어—곧 “가톨릭(catholic)”—을 선택했을까요?

4세기 말에 이르러, 이 ‘보편성(catholicity)’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기 신자들 가운데에는 유대인 배경에서 온 이들도 있었고, 이방인(비유대인) 배경에서 온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살펴보고, 전체에 비추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catholic)”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곧 “전체에 따른”, 다시 말해 어디에 있든 존재하는 전 세계의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장면을 가리킨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말입니다. 요한의 환상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두 서게 될 장차 올 때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가 본 그 큰 무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 곧 각기 다른 모든 형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기독교가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글로벌 하며 시간 초월적입니다.

교회가 전체로서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의해야 합니까? 글로벌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에 따라”, 곧 보편적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과 중국, 인도의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글로벌 복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은 그 어떤 곳을 위한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교단 가운데서도 우리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과 가능한 한 많은 부분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핵심 신앙을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깊이 묶여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젠가 우리가 모두 함께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보편적 정신(The Catholic Spirit)」에 관한 설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그 믿음에 굳게 뿌리내리고, 사랑 안에—참된 보편적 사랑(catholic love) 안에—굳게 서서, 마침내 영원무궁토록 사랑 안에 잠기게 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바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온 세상과 시간을 넘어 존재하는 주님의 백성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속한 이 지역과 나 자신의 자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더 편안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온 세상을 향한 복음과 보편적인 신앙의 정신(catholic spirit)을 기꺼이 품을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묵상해 봅시다

1. “가톨릭(catholic)”이라는 용어를 ‘전체에 따른’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사도신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2.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일에 있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같이 생각하는 것 (thinking alike)”과 “같이 사랑하는 것 (loving alike)”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 요한 웨슬리의 설교보편적 정신(On a Catholic Spirit)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읽어 보지 않으셨다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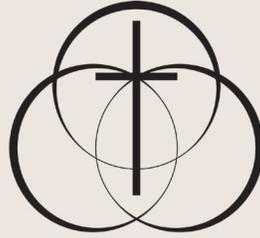


세상은 우리의 교구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교구이다(The World Is Our Parish)시리즈를 통해 감리교의 뿌리와, 처음부터 우리 운동을 형성해 온 세계적 소명을 함께 성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리교의 세계적인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실한 증언과 연결, 그리고 사랑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든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여전히 온 세상이 우리의 교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지—가깝든 멀든—우리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GLOBAL

METHODIST CHURCH

“세계는 우리의 교구이다(The World Is Our Parish) 영상 강의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존 페냐 아우타(John Pena Auta) 감독, 제프 그린웨이(Jeff Greenway) 감독, 케네스 레빙스톤(Kenneth Levingston) 감독, 캐롤린 무어(Carolyn Moore) 감독과의 협력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학습 가이드 커리큘럼은 캐더린 라일리(Katherine Reiley)와 캐롤린 무어(Carolyn Moore)가 작성했습니다.

이 학습 가이드에 수록된 사진들은 영국 내 역사적인 웨슬리안 및 감리교 유적지를 순례한 감독회의(Assembly of Bishops)의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요 방문지는 브리스톨에 있는 웨슬리의 뉴 룸(New Room), 브리스톨의 웨슬리 가정, 런던의 웨슬리 가정,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처치(Christ Church)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교육 시리즈를 보시려면 globalmethodist.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